

불교 이래서 좋다

김기연 서울 옥수동 연꽃어린이집 교사

“불교는 공기와 같은 존재”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나에게 있어 불교는 바로 공기와 같은 존재다. 어린 시절 어...



하루종일 어린이들을 돌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다. 그때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

불교가 왜 좋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는 생각은 나를 겸허하게 만든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기에

가정이나 직장 등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부처님들이 존재하기에 항상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불교가 나의 생활이 되어 버렸기에 가능한 것 같다.

절에 가면 기분이 좋고 바람에 흔들려 울리는 법당의 종경, 스님의 독경소리 모두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세상에 팔만 사천 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살감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집 가까운 절에 들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서원한다. 어린이집 선재동자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성법우를 ‘여왕’으로 모셔요

조계사 청년회 ‘세계여성의 날’ 이색법회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교계 안팎에서 여성들을 위한 이색법회와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사 청년회(회장 정우식)는 9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엄마법우를 위한 특별 법회’를 마련한다. 법회에 참석하는 여성 법우들은 이날 완전히 여왕의 대접을 받으며 신명생활에 열중할 수 있다. 우선 법회장으로 들어가는 여법우들을 위해 입구에

말아본 덕스님(장경사 주지)이 초청돼 ‘가정의 중요성과 다변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주제 형식의 법문을 한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찬불가 동아리 회원들의 음성공양도 함께 준비된다. (02)735-3724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은 “가정과 아이들 등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잃고 살아가는 여성법우들을 위해 하루 정도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명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며 “이번 법회가 호응이 좋으면 월 1회씩 정기법회로 정례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낮 12시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문화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시민난장’을 펼친다. 이번 문화마당에서는 사진전과 전통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시민들이 여성노래를 배우는 시간, 여학생 축구쇼, 엄마들의 댄스스포츠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탤런트 권해효씨의 사회로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과 예술단 ‘오름’의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이어 대학로에서 중요공인까지 이어질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대형터널로 구성된 성차별터널을 통과한 후 여성해방을 상징하는 보랏빛 깃발을 흔드는 행진을 한다. 아울러 94인이 참여하는 ‘해방 향해 함께 달리기’ 퍼포먼스, 2002인의 ‘평등의 탑쌓기’도 흥미진진한 볼거리다. (02) 2273-9535

여성담당 =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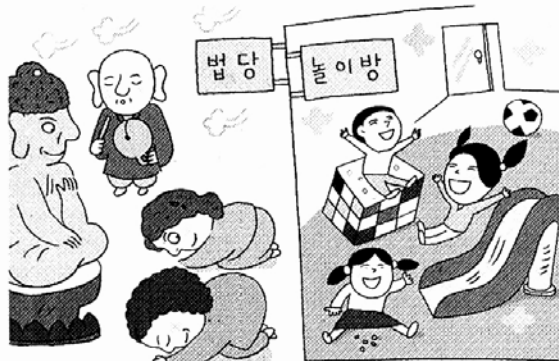


그림 · 김영민

엄마위해 어린이 ‘일일놀이방’ 마련  
여학생 축구쇼 · 스포츠 댄스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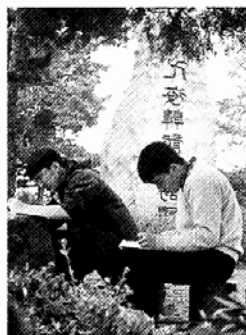
서남성 법우들이 꽃을 달아주는가 하면, 유아들이 있는 엄마 법우들을 위해 ‘일일 놀이방’도 설치한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조계사 설법전에서 여는 ‘일일 놀이방’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출신 법우들이 어린이들에게 풍선만들기, 율동배우기 등을 가르쳐며 놀이재미 엄마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회원들의 주례를 50쌍 이상

만해백일장 대상 김희용 양

시·시조부문 장원 백승은 등 3명

만해스님의 문학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제23회 만해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1일 동국대 증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백일장에는 ‘언덕’ ‘꿈’ ‘31절’ 등을 시제로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만해대상(문학관공부장관상은)은 ‘언덕’을 주제로 산문을 쓴 김희용(안양예고 3) 양이 받았다. 또 시·시조 부문 장원에는 백승은(송계초등 6), 이태정(중대부중 2), 홍문기(강원고 3), 손하리(화여대 3) 등이 차지했다. 산문 장원부문에는 최예진(의정부 민락초등 4), 이하나(태릉중 3), 박보영(유성여고 3) 등이, 단체



○1일 열린 제23회 만해백일장에는 중고등 및 대학생과 일반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문체로 표현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쓴 ‘수작’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상은 한마음선원과 혜명보육원이 수상했다.

심사를 맡은 민영(시인)씨는 “문체와 내용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며 “특히 대상 수상작은 고교생 작품 답지 않게 자신의 가정사를 절제된 감성속에서 사실적이고 편안한 문체로 표현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쓴 ‘수작’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불교TV가 봄철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간다라불교’ 특강에서 민회식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간다라 불교와...’ 특강

불교TV 봄 프로그램 새단장

불교TV(사장 이수득)가 4일부터 봄철을 맞아 생활 · 교리 · 문화 특강과 다큐멘터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 새단장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매주 목요일 오전 9시20분~ 오전 10시. 간다라 불교연구가인 민회식 교수(한양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간다라 역사에서부터 불상 탄생의 배경 등에 이르기까지 간다라 불교의 총체적 6개월간 집중 분석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딱딱한 스튜디오 녹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부한 자료 화면을 자주 활용할 계획이어서 시청자들이 간다라미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인사 부산 포교원에서 참선요가를 지도하는 정경스님 하는 정경스님 이 진행하는 ‘참선요가’ (월·토, 오전 11시45분~55분)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에 한 동작씩이라도 따라하면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에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양팔 벌리고 비틀기’, ‘발목잡고 가슴 젖히기’, ‘두손잡고 등으르내리기’ 등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시범과 함께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외에도 유식학의 체계와 핵심사상을 쉽게 설명해 주는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의 ‘유식삼십삼강의’ (금·토, 오전 8시50분~오전 9시20분, 대만불교에서 추앙받고 있는 성운스님의 ‘아함경 강좌’ (토, 오전 10시20분~오전 11시), 사르나트와 쉬라바스티 등 불교유적을 순례하고 그 유적들에 얽힌 부처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 (금, 오전 9시20분~오전 10시) 등도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김주원 기자 jkim@buddhapia.com



“감동주는 소설 많이 쓰고 싶어”

대상 수상자 김희용 양

“외할아버지의 외도로 별거에 들어갔던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을 풍트형식을 빌어 표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살날때 가족이 모두 모여 정담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정제된 글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제23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희용(안양예고 3)양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신라대 주최 백일장에서 우수상, 2000년 천안대 백일장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재원이자. 김양은 “앞으로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줄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마 저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병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할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된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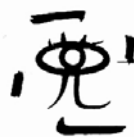
정강 대진 입성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방영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충남지사 041-942-9599 / 017-409-959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마산 · 창원지사 055-232-8820 / 017-552-5281
목포지국 061-276-0701 / 019-644-070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포천지국 031-534-7972 / 011-704-7979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알림

탄허 문도회 탄허 불교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

- www.tanheo.com (탄허닷컴)
www.tanheo.org (탄허닷오일지)
www.tanheo.net (탄허닷넷)
www.tanheo.or.kr (탄허닷오일닷컴)
www.tanheo.co.kr (탄허닷씨오닷컴)

탄허스님 홈페이지가 2002년 7월에 문을 엽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도움이 될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탄허문도회 : (033)642-3555, (02)459-6270
탄허불교문화재단 : (02)2271-0917, 595-7800